

농진청, 돼지콜레라 발생 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15일 돼지 콜레라 발생주의보(가축질병 발생정보 제 1호)를 발령하고 전국의 양돈농가에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농진청이 발표한 주의보 전문이다. <편집자 주>.....◇

돼지 콜레라 발생 주의보

최근 환절기를 맞아 돼지콜레라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15건, 1,148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더욱 번질 것이 우려되어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양돈농가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소독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는 신속히 당국에 신고하여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도록 당부드립니다.

1. 주요 증상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감염발병하고 7~21일 사이에 거의 죽는다.
- 체온이 40~41°C로 오르고 몇일이 지나 죽는 급성의 경우와 열이 일정치 않고 20~30일이 지나 죽는 만성적의 경우도 있다.
- 처음에 열이 나며 사료를 먹지 않고 곱이 섞인 굳은 똥을 누다가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한다.
-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며 기침과 구토를 종종 한다.
- 몸에는 붉은 얼룩무늬가 생기고 뒷다리를 잘 못 쓰고 비틀거리며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어 죽게 된다.

2. 예방조치

- 새끼돼지를 시장이나 돼지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하여 2-3주간 따로 기르면서 예방주사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다.
- 돼지우리와 그 주변은 가성소다 등 강력한 소

독약으로 계속 소독하고 외부인의 돈사내 출입을 삼가한다.

- 병에 걸린 돼지는 신속히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3. 예방주사

- 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되고 있을때(긴급할때)
 - 분만 후 첫젖을 먹기전 새끼돼지에 주사
- 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이 없을때
 - 생후 30-40일령에 1차
 - 생후 50-60일령에 2차 } 두번 주사
- 번식용 어미돼지
 - 접붙이기 2-4주 전에 1회 주사
- 주사는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없이 모두 귀뒷부분 피하나 뒷다리 근육내에 1ml를 놓는다.

- 4. 농림수산부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을 돼지콜레라 일제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돼지 기르는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예방주사를 실시해야 한다.